

디지털 시대에 직면한 한국 현대시의 변화상 연구*

임수영**

[국문초록]

본고는 디지털 시대에 직면한 한국 현대시의 변화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최근까지 이 같은 변화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을 구체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기술매체의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교응하는 한국 현대시의 변화상과 그 의의를 ‘재매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언어의 새벽: 하이퍼텍스트와 문학>과 <生時·生詩>에서 시도된 하이퍼텍스트 시 쓰기 실험은 이후 <팬포엠>, <포엠포피아> 등으로 이어졌으나 일회성과 제한된 참여라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꾸준히 디지털화 노력을 경주해온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의 시도들은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의미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문장>의 재매개 양상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은 시를 디지털 매체로 옮겨 모양과 느낌을 바꾸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32-A00124).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조교수

주제어: 현대시, 매체, 웹진,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재매개, 하이퍼텍스트, 양방향 소통
Modern poetry, media, webzine, cyber literature plaza munjang, remediation, inter-active communication.

는 인쇄 텍스트의 재매개에 대한 검토이다. 이는 그것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인쇄매체의 특징을 전자 매체 속에서 유연하게 재조직하고 개선해나가려는 노력과 관련이 있음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또한 시의 재생산과 수용방식의 공간화라는 측면에서 <문장>이 시도해온 ‘시배달’ 영상 제작의 의미와 그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 등 스마트폰 기기를 감상의 방식으로 도입한 <문장>의 시도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SNS와 같은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도입한 하이퍼텍스트성의 재매개적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디지털 시가 지녀야 할 양방향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현재 <문장>의 운영 양상에서 발견되는 소통 측면에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한국시의 디지털화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맞아 변화하고 있는 현대시의 변모 양상을 고찰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현대시의 미래상을 타진해보려는 시도이다. 최근 한국 현대시에는 시의 내적 통일성을 중시하던 과거의 창작방식¹⁾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파편화되고 단절된 언어를 통해 의식을 표현하거나 회화, 음악 등의 고전적 예술장르를 시에 도입시키던 시도를 넘어서 대중문화 영역의 수많은 콘텐츠와 키치류의 일상적 모티브를 시 속으로 직접 끌고 들어와 시의식과 결부시키는 창작의 형태가 등장했다.²⁾ 또한 사이버 문학잡지 <문장

1) 김태욱(2010), 『담화 텍스트 언어시학』, 서강대학교 출판부, p. 63 참조.

2) 임수영(2010), 『現代詩의 消費現象과 텍스트의 擴大』, 『語文研究』 제145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이 논문에서는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발표된 국내 시집들이 1차적 자료 검토의 일환으로 거의 전종이 섭렵되었고, 특히 2005년 이후의 시집들이 집중적으로 검토, 분석되었다. 그중 동일한 선형성을 기반으로 하되 이전의 시문학 창작방식과 차이점을 보이는 시작품들을 창작특성과 시인군별로 유형화하여 새로

웹진>이나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학 속 세상’³⁾, 인터넷 서점 ‘인터파크 도서’ 내에서 운영되는 웹진 ‘북&’(북앤)⁴⁾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시의 창작과 수용 방식이 실험된 바 있다. 이는 시단 안팎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목도되는 현대시 창작과 수용상의 변모를 특징적으로 나타내준다.

디지털이라는 매체적 특성에 익숙한 20대가 현재 한국시의 주요한 독자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⁵⁾ 이는 비단 독자층에 한정된 문제만이 아니다. 20대가 신진작가군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들에 의해 새롭게 구축된 창작환경의 외적 특성이 시 장르 자체의 변화를 불러오고

은 흐름의 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의미화함으로써 이들 시의 장, 단점을 살펴보고 있다.

- 3) 2008년 11월 오픈한 ‘다음’의 ‘문학 속 세상’은 시행 초기 시, 소설, 에세이를 포함한 전방위적 디지털 문학 연재를 실시하였고, 이후 ‘장르 스페셜’ 코너(<http://book.daum.net/story/genre>)를 신설해 판타지 문학 등의 장르문학을 중심으로 연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현재는 ‘책’ 메뉴의 하위코너(<http://book.daum.net/story/top.do>)로 축소된 채 소설 연재만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나가고 있다.
- 4) 2009년 1월 출범한 웹진 ‘북&’은 시행 초기 작가와의 온·오프라인 만남과 현장스케치, 만남 후기, 작가 인터뷰 및 전문가 칼럼, 뉴스 등 8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문학 중심의 활동을 시도하였다. 오픈캐스트를 운영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에 다가가려고 시도하는 한편, 연재, 칼럼, 명사의 서거, 북&다이어리 등의 섹션으로 개편함으로써 문화 영역으로 범위를 넓혔다. 그 중 실제 문학을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은 시, 소설, 에세이, 웹툰의 ‘연재’ 코너였으며, 최승호, 안도현 시인들의 신작을 삽화로 제작해 소개하는 코너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독자들이 ‘덧글’을 달았다. 이는 인터파크라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서점(쇼핑몰)과의 연계를 통한 접근성에 기인한 것으로 <웹진>이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모색과정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현재는 BOOK DB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 중이다.
- 5) 시의 대중화 양상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의 대다수를 형성하는 20대가 시문학에 대한 감정적 선호와 실제적인 시집 독서량, 구입량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조사되었다. 임현순(2008), 『독자들의 한국현대시 수용과 인식의 특성-한국대중시 형성의 문화적 요인과 현대시의 대중화 문제 연구(1)』, 『한국시학연구』 22호, 한국시학회, p. 322.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외의 경우 혹은 타 장르의 디지털화 경향과 비교해볼 때 한국 현대시의 이 같은 변화상은 아직도 시도의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 역시 기초 자료의 발굴과 정리 이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롭게 구축된 문학 환경이 한국 현대시 장르에 미친 영향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의 경우를 중심으로 시의 형태 혹은 창작과 수용의 방식에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시 장르의 새로운 변화를 ‘재매개’를 중심으로 특성화함으로써, 다매체 시대에 직면한 한국 현대시의 좌표를 점검하고 그것의 의미를 고찰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매체의 변화와 현대시의 변용

급변하는 현대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들은 이전 시기의 문학과 현재의 문학을 분리시키는 다양한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디어 매체의 등장이다. ‘매체’는 논자들에게 따라 그 정의가 다른데, 기술적 작용 및 잠재성의 총체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언어, 소리 이미지 등의 기호적 매체인 미디어와 흔히 대중매체로 거론되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의 전달하는 매체인 미디어로 구분된다.⁶⁾ 흔히 “미디어가 메시지다”⁷⁾라고 번역되는 맥루한의 언급이 실질적으로 미디어를 지칭하고 있음을 보아도⁸⁾, 매체란 감각, 의식, 경험

6) 파트리스 파비스(2012), 『21세기 인문학에서의 수행성과 매체성』, 『수행성과 매체성: 21세기 인문학의 쟁점』(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푸른사상, pp. 31-33.

7) 마셜 맥루언(1997), 박정규 옮김,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p. 25.

8) “the medium is socially the message” Marshall McLuhan(2003), *Understanding Media*(ed. by W. Terrence Gordon), Corte Madera: Ginko press, p. 18.

등을 반영하는 것이며 도구의 차원을 넘어⁹⁾ 인식의 차원 및 인간 존재 자체와 행위 그리고 사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가능성으로 인식될 수 있다.¹⁰⁾ 이 같은 맥루한 등의 견해는 매체의 발전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확장, 즉 인간 감각의 확장”¹¹⁾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문학의 속성과 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며, 미디어를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추상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¹²⁾

상기한 매체에 대한 인식은 다매체 시대에 직면한 시문학의 변화가 창작방식의 변화와 소통방법의 확장을 포함하는 포괄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매체화는 여러 매체들의 단순한 공존이 아니라 동일한 콘텐츠가 여러 매체와 채널로 유통되며 다양한 형태로 변할 수 있는 현시대¹³⁾의 새로운 문학적 특성으로 거론될 수 있다. 이 같은 “문학매체”¹⁴⁾로서의 디지털 기술은 언어에 기반한 ‘시’ 장르를 새롭게 재현시키는 ‘재매개’¹⁵⁾의 과정을 내포한다.

디지털 시대, 인터넷 환경의 도래를 의식한 한국 현대시의 변모는

- 9) 실제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아도 매체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미경의 상태로 가운데에 있으면서 매개하거나 전달을 가능하게 만드는 무엇으로 정의된다. 디터 메르쉬(2009), 문화학연구회 옮김, 『매체이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p. 21.
- 10) 심혜련(2012), 『20세기의 매체철학』, 그린비, p. 129.
- 11) 심혜련(2012), p. 133.
- 12) 제이 데이비드 볼터 · 리처드 그루신(2006), 이재현 옮김,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커뮤니케이션북스, pp. 92-93 참조.
- 13) 장노현(2013), 『디지털 매체와 문학의 확장』, 역락, pp. 17-18.
- 14) 피종호(2000), 『예술형식의 상호 매체성』, 『독일문학』 76권, 한국국어독문학회, p. 248.
- 15) 볼터와 그루신은 또 다른 매체의 매개화를 통해 한 매체가 재현되는 것을 ‘재매개’라고 규정한다. 즉 이는 하나의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를 개혁하거나 개선한다고 우리 문화에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 심혜련(2012), p. 139; 제이 데이비드 볼터 · 리처드 그루신(2006), p. 71; 이는 모든 매체는 항상 그 다음에 오는 매체의 내용이라는 맥루언의 견해와 맞닿아있다. 디터 메르쉬(2009), p. 127 참고.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의 변화는 선형성에 기반을 둔 시의 전통 안에서 전개된 소재 중심의 변이로 사회, 문화적 변화상의 시적 반영이었다. <언어의 새벽: 하이퍼텍스트와 문학>(http://eos.mct.go.kr) [그림 1] (이하 <언어의 새벽>)과 <生時·生詩>(www.livepoems.net)[그림 2]가 실험적으로 운용된 2000년이 되어서야 디지털 매체가 직접 창작에 적용되며 ‘재매개’의 양상으로 우리 시단에 최초로 등장하였고, 이전 시기의 시도와 차별화되는 현대시의 디지털화 양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림 1] 언어의 새벽



[그림 2] 生時·生詩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를 맞아 문화관광부 문학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언어의 새벽>과 <生時·生詩>는 국내 최초의 하이퍼텍스트 시 쓰기 실험을 표방한 프로젝트의 성격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성 문단의 시인들과 일반 독자들이 디지털화된 하나의 공간에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창작과 감상의 방식을 경험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의 구축과 운영은 이벤트성 행사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었고, 대중적 홍보의 부족 때문인지 실제로는 일반 독자들의 참여가 저조해 능동적 독자의 참여라는 하이퍼텍스트의 성격이 부각되지 못했다.¹⁶⁾

16) 부제에 포함시킬 정도로 “하이퍼텍스트”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언어의 새

하이퍼텍스트는 “비선형성과 다매체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정의되나¹⁷⁾, 당시 <언어의 새벽>과 <生時·生詩>가 시도한 하이퍼텍스트는 비선형성에 한정된 것으로 링크를 통해 텍스트를 이동하는 제한된 하이퍼텍스트 경험에 그쳤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이 배제된 문자 중심의 선형적 텍스트 성격을 지녀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중의 자유로운 참여와 역동적인 상호소통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이중의 한계를 노정하였다.

2003년 <팬포엠>(FanPoem: <http://www.fanpoem.co.kr>)[그림 3]이 개설되면서 <언어의 새벽>과 <生時·生詩>의 실험적 시도가 이어졌다. 『서정시학』과 관련을 지닌 시사랑문예대학(www.poemq.or.kr)이 2003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한 <팬포엠>은 “일반 독자뿐 아니라 기성 시인들에게도 새로운 차원의 창작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시형식”¹⁸⁾으로 자평을 발표한다. 그러나 실제 운영내역을 들여다보면 <팬포엠> 역시 “일반 독자”와 “기성 시인들”을 아우르지 못한 선행작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음이 드러난다. 대부분의 시쓰기가 운영주체들이 개설한 대학 강의 수강생들의 참여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에스펜 올셋은 이러한 경향을 기술진보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결정”이라 규정한 바 있다.¹⁹⁾ <팬포엠>의 운영이 연구기간 종료 후까지 지속되지 못했다는 점 또한 그것이 초기 작업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게 해준다.²⁰⁾

벽> 역시 김수영의 시로부터 출발한 씨앗글과 새순글 작성 대부분을 기존 시인들이 담당하였다.

- 17) 이때 비선형성은 전통적 시 텍스트의 선형성과 구분되는 것으로 조각 텍스트들이 링크를 통해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특성을 의미하며, 다매체성은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의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이 텍스트에 편입되는 특성을 지칭한다. 유현주(2003), 『하이퍼텍스트-디지털미학의 키워드』, 연세대학교 출판부, p. 36.
- 18) 최동호, 이성우(2005), 『팬포엠(FanPoem)의 가능성과 실제 구현-하이퍼텍스트 시 쓰기 프로그램과 시인, 독자의 위상 변화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1권, 민족어문학회, p. 203.
- 19) 에스펜 올셋(2007), 류현주 역, 『사이버 텍스트』, 글누림, p. 320.



[그림 3] 팬포엠



[그림 4] 포엠토피아

이들 초기의 디지털화 양상은 한편으로 너무나 기술적 측면에 치중해 시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듯 보일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시의 내용을 그대로 웹상에 재현하는 듯 보여 디지털 시라면 보다 “이렉적이고 극적이며 평범하지 않”²¹⁾을 것이라는 독자의 기대를 빚나 가기도 한다. 또한 새로운 매체시대에도—죽음을 맞이하지 않고—저자의 영향력이 오히려 막대해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²²⁾ 이처럼 지금까지 국내 시단에 등장한 디지털화의 실험적 시도들은 비선형성, 다매체성, 독자의 적극적 참여라는 하이퍼텍스트의 특성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고

20) 이는 대체로 프로젝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문제와 결부되는 것으로 기획단계의 포부가 프로젝트 기간 종료 후 사멸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많은 경우 이들의 시도는 사이트의 링크마저 사라져 현재로서는 그 실험의 흔적을 탐구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시와시학>의 수익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포엠토피아>(http://www.poemtopia.co.kr)[그림 4]의 경우도 시메일 다시 보기 등을 유료회원의 전용공간으로 전환시키는 등 초기의 실험적 시도들이 점차 사라지다가 현재는 사이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 아쉬움을 남긴다.

21) 가브리엘 와이만(2003), 김홍호 옮김, 『매체의 현실 구성론』, 커뮤니케이션북스, p. 15.

22) 유현주(2009), 「디지털 매체에서 구체시의 새로운 방향—비주얼 포엠, 구체시, 디지털 포엠」, 『인문학연구』 제38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 11; 하이퍼텍스트를 시 장르의 창작에 활용할 경우 능동적 독자의 등장으로 저자의 권위가 해체되면서들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저자와 독자의 역할” 재설정 현상이 초래되기도 한다. 오은경(2008), 『뉴 미디어 시대의 예술—예술은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연세대학교 출판부, p. 62.

평가받기 힘든 측면을 지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현실과 “매체 현실” 간에 차이가 존재하듯—이 같은 디지털화 경향은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새로운 변모양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3. 한국 현대시의 재매개 상상

본고에서는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사회, 문화적 측면의 변화가 시 장르의 창작과 수용방식에 미친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장 최근까지 시의 디지털화를 시도해온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http://www.munjang.or.kr/>)[그림 5] (이하 <문장>)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진행해온 실험적 양상을 검토해보고 그 의미와 한계를 짚어 보기로 한다.



[그림 5]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한국 현대시의 디지털화는 <문장 웹진>(http://webzine.munjang.or.kr)이 운영하는 <문장>에 의해 선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 5월 23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동안 문학의 침체 및 위기를 몰고 온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인터넷을 오히려 문학 창작과 향수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취지를 표방”²³⁾하며 출범시킨 <문장>은 디지털 매체의 활용을 전면화한 시의 창작과 감상방식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왔다.

<문장>의 메뉴는 크게 ‘도서관’, ‘문학집배원’, ‘문장의 소리’, ‘창작광장’, ‘정보와 참여’, ‘회원마당’으로 나뉜다. 그중 다매체성을 활용하고 있는 코너는 ‘도서관’의 하위메뉴인 ‘멀티미디어 정보관’과 ‘문장의 소리’, ‘문학집배원’을 들 수 있다. ‘멀티미디어 정보관’에는 현재 856개의 문학 관련 영상과 오디오 파일 등이 탑재되어 있다.

비선형성에 기반을 두던 시의 하이퍼텍스트 이용 문제는 디지털 매체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 시의 의미화 방식과 창작, 수용 양상의 변화 측면에 초점을 두고 검토될 수 있다. 이는 웹상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시를 창작, 발표, 감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형적 텍스트 중심의 시를 이미지 파일, 음악 파일, 음성 파일, 동영상 파일,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해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창작방식을 실험한 경우를 포함한다.²⁴⁾ 본고에서는 이를 ‘재매개’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시의 디지털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때 재매개란 미디어로 다른 미디어를 표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독특한 특성이다.²⁵⁾

23) 최재봉(2005), 「문학 포털사이트 ‘문장’ 문 열어」, 『한겨레』, 한겨레신문사, 2005.6.1.

24) 피종호(2005), 「디지털 문학의 유형」,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25호, 한국뷔히너학회, p. 232, p. 234.

25) 제이 데이비드 볼터 · 리처드 그루신(2006), p. 53.

3.1. 인쇄 텍스트의 재매개

오늘날 월드와이드웹은 현대인의 삶을 거의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대해졌다. 사람들은 매일 인터넷에 접속해 검색을 하고 메일을 확인하고 신문기사를 본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이제 전자매체는 편리한 도구의 역할을 넘어 사람들을 중독에까지 내몰고 있다. 이 같은 전자매체 시대에 문학잡지가 웹진의 형태를 병행시키거나 아예 탈바꿈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문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수용되어 온 문학잡지의 저변을 확대하고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적 모색의 일환으로 개설된 <문장 웹진>은 문학이 대중과의 친연성, 접근성을 높이려 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창간 1주년을 맞아 <문장 웹진>의 편집위원들은 ‘웹진’(Webzine)이 지녀야 할 매체적 특성에 대한 고민을 ‘편집위원 노트’를 통해 여러 차례 피력했다. 이는 “기술적 매체”의 활용을 통해 “매체적 변화가 불러온 새로운 문학적 흐름에” “그 활용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다가서”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²⁶⁾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으나, “기술적 매체”에 대한 사유는 이후 네트워크의 성격을 활용한 인터넷 환경의 ‘비선형성’을 문학의 창작과 수용의 방식으로 적용하려는 <문장>의 노력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장 웹진>의 행보는 ‘다매체성’의 다양한 실험적 시도들을 포괄함으로써 이전 문학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문학의 창작과 수용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기반으로 한다.²⁷⁾ 즉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방

26) 장철문(2006), 「출발의 동력을 거듭 새기며」, 『문장웹진』 6월호.
<http://webzine.munjang.or.kr/archives/2215>.

27) 서경석(2006), 「웹진 ‘문장’은 늘 새롭게 태어난다」, 『문장웹진』 6월호.
<http://webzine.munjang.or.kr/archives/2213>.

식과 관련된 매체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삼는데, 이는 이전 미디어의 매개라는 ‘재매개’의 특징을 드러낸다. 재매개는 매개의 매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 예술의 미디어화를 재매개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²⁸⁾ 이러한 재매개는 문학을 창작/수용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를 실험하고 체험하는 활동들로 평가받을 수 있다.²⁹⁾

28) 제이 데이비드 볼터 · 리처드 그루신(2006), p. 66.

29) ‘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사유를 보여준 초창기와 달리, 최근 <문장 웹진>의 행보는 또 하나의 문학잡지로서 ‘내용’적 측면을 특화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중이잡지의 미만(彌滿)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함께 출발했”(장철문(2006))던 <문장 웹진>이 결국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문학잡지 ‘문장’으로서의 모습만 가다듬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근간의 편집위원 단상에 나타난 매체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내용 측면의 소개에 치중되었고, 복고적 매체가 지닌 진정성을 피력하는가 하면 “디자인과 서버”라든가 “달라진 표지와 시스템의 변화”와 같이 시각적 측면의 단상에 한정되어 나타났다. 새로운 체제 아래에서 그간 디지털화된 시대에 직면해 창작/수용의 주체 간 양방향 소통의 장을 열어두려 한 <문장 웹진>의 꾸준한 노력은 현재 어느 정도 한계를 체감하고 주춤한 듯하다.

물론 이는 비단 ‘편집위원 노트’(고봉준(2012; 2013); 편혜영(2013))의 한정된 글귀에만 의거한 판단은 아니다. 편집방향의 변화는 <문장 웹진>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문학광장 문장의 메뉴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2012년 4월 새로운 편집방침에 따른 개편이 있기 전-이전의 메뉴에는 매체적 특성을 살리려는 초기부터의 노력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는 의미이다 - 존재하던 ‘멀티미디어’ 메뉴와 행사 등의 소식을 입체적으로 전달해주던 ‘문학전광판’ 메뉴가 큰 분류에서 사라졌다. 또한 현존하는 ‘도서관’ 메뉴 또한 과거에는 ‘영상정보관’과 ‘오디오정보관’으로 나뉘어 각각 358건, 390건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영상정보관’에서는 ‘취재파일’과 ‘인터뷰’를 담은 ‘문장TV’와 ‘문학교양’, ‘디지털문예아카데미’로 구분된 ‘문학강좌’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그 외 ‘EBS 문학강좌’, ‘올해의 예술상 특집’, ‘디지털문화예술아카데미’, ‘금요 문학이야기’가 영상파일로 제공되었다. ‘오디오 정보관’ 역시 작가의 육성으로 듣는 애송시, 직접 낭송해 보는 자작시 등으로 구분되어 음성 파일이 탑재되었다. 또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제작된 ‘문학 나눔 오디오북’에서는 신경림의 시집 『때로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의 수록 시들을 낭송한 오디오 파일들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도서관 메뉴에는 이 같은 전자 매체의 활용을 고려한 분류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영상, 오디오 파일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모든 파일들

실제 <문장 웹진>의 시도는 “컴퓨터로 통제되는 사진식자, 워드 프로세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전자 게시판과 이메일”, 웹사이트 등의 형상³⁰⁾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인쇄 매체의 글쓰기 특징을 컴퓨터 화면 속으로 옮겨 “모양과 느낌”을 바꾸는³¹⁾ 인쇄 텍스트의 재매개 양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종이에 기록된 아날로그 글쓰기를 매체만 바꿔 인터넷 웹진에 게재하는 것은 진정한 웹진이 아니다. …… 2000년대 이후 창간한 상당수의 웹진은 오프라인 잡지의 보조 형태나 아날로그 글쓰기를 웹진에 그대로 게재하는 형식을 취했다./이 어색한 만남은 네티즌들의 외면을 받았다. …… <문장 웹진>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³²⁾

<문장 웹진>은 기존 문학잡지에 실린 작품, 대담이나 문단동향 소개를 텍스트 파일로 웹상에 게시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기본 포맷이 종이 인쇄 잡지와 유사하다. 상기한 칼럼에서 이 같은 특성은 낯선 비판을 받았다. 디지털 문학을 책의 매체가 지니는 성격을 크게 벗어난 실험예술에 속하는 것으로 바라본 것이다.³³⁾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문장 웹진>의 행보는 아날로그 시대의 잡지 <문장>을 전자매체를 통해 재매개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쇄매체상의 텍스트를 유연성, 비선형성, 상호작용성이 기반

이 통합되어 ‘멀티미디어 정보관’이라는 하위메뉴 아래 순번에 따라 나열되고 있을 뿐이다.

30) 제이 데이비드 볼터(2010), 김익현 역, 『글쓰기의 공간』, 커뮤니케이션북스, pp. 14-15.

31) 제이 데이비드 볼터(2010), p. 36.

32) 최강민(2013), 「온라인 시대와 웹진 <문화 다>」, 『교수신문』, 2013.1.4.

33) 피종호(2005), p. 235.

이 된 전자매체로 ‘단순히’ 옮겨 놓는 것 또한 ‘재매개’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이 단순히 고정성, 선형성, 일방향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쇄매체의 재현을 의미할지라도 말이다. 이 경우 <문장 웹진>에 실린 시는 인쇄된 시 텍스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정당화된다. 그리고 이 때 종이잡지와 웹진에 실린 시를 구분시켜주는 것은 모니터상의 해상도와 색깔을 바라보거나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두드림으로써 컴퓨터라는 매체를 실감하는 독자의 행위에 놓여 있다.³⁴⁾

그런데 현재 <문장 웹진>이 시도하고 있는 문학의 디지털화는 단순한 인쇄매체의 모방을 벗어나 인쇄 매체의 특징을 전자 매체 속에서 유연하게 재조직하며 개선³⁵⁾해나가는 재매개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례로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자.

우리들의 시간은

—영화 『프란시스 하(Frances Ha)』 중에서 / 감독 : 노아 바움바흐 (Noah Baumbach)



[그림 6] 함성호 <우리들의 시간> 일부

34) 제이 데이비드 볼터 · 리처드 그루신(2006), p. 54.

35) 제이 데이비드 볼터(2010), p. 36, p. 40 참조.

[그림 6]은 2월 1일에 게시된 함성호의 신작시 <우리들의 시간> (<http://webzine.munjang.or.kr/archives/11217>) 중 일부이다. 영화의 이미지를 활용한 이 같은 시편들은 문자 텍스트가 이미지를 포함하고 제한하는 종이에 인쇄되는 것보다 웹상의 이미지로 대할 때 더욱 실감나게 전달될 수 있다. 이미지가 문자 텍스트를 지배하는 월드와이드웹³⁶⁾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창작된 시이기 때문이다. 소설 등 선형적 성질을 강하게 지닌 산문을 컴퓨터 화면에 딱 차게 담아내는 것과 달리³⁷⁾ 시는 자체의 장르적 특성으로—이는 리듬, 운율 등의 내재적 측면뿐만 아니라 형태적 측면까지 아우른다—말미암아 웹상에 재매개될 때 인쇄 매체와 구분되는 새로운 모양과 느낌으로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다.

인쇄된 책에서는 문자 텍스트가 이미지를 포함하고 제한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접해온 시집 속에서 사진이나 그림은 시 텍스트의 보조적 구성요소의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월드와이드웹에서는 이미지가 문자를 지배한다. 상기한 함성호의 시에서도 문자는 사진 이미지의 일부로 인지된다. 애니메이션과 디지털 비디오의 활용으로 그림과 음악이 영상으로 전달되면서 이 같은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문자로 전달되는 시의 전문이 영상 내에 부가적인 요소로 삽입되게 된 것이다. 어쩌면 앞으로는 아예 글 없이 애니메이션, 디지털 비디오만 사용해 영상을 보고 귀로 듣는 시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시 감상의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미디어를 통한 시의 재매개가 디지털 매체가 형성한 공간 속에서 시를 새롭게 의미화하는 생산과정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³⁸⁾

36) 제이 데이비드 볼터(2010), p. 71.

37) 볼터는 이를 가리켜 테크놀로지의 성질에 맞지 않는 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평했다. 제이 데이비드 볼터(2010), p. 31.

38) 제이 데이비드 볼터(2010), p. 71 참조.

3.2. 시의 재생산과 수용방식의 공간화

<문장>의 ‘문학집배원’ 메뉴 중 시배달 코너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시의 재매개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집배원 시인들³⁹⁾이 추천하는 시편과 그에 대한 단상이 배경음악, 캐리커처, 애니메이션, 플래시, 시 낭송 음성파일 등을 통해 재매개되어 제공된다.

시는 문자매체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낭송으로 기반으로 하는 장르의 문학이다. 시에 대한 독자의 직관적 이해가 음악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시의 장르적 특성은 이미지, 애니메이션 효과, 비디오나 영화 등의 시청각 자료와 함께 결합되어 상호매체적 특징을 띠는 디지털 매체로의 전환을 매우 자연스럽게 용이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시배달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인쇄 텍스트의 단순한 재현을 넘어선다. 음악, 낭송, 이미지들이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기술매체와 결합해 시 텍스트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재매개의 과정을 거쳐 시 텍스트가 개혁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 결과 내용이 같은 시라도 시배달을 통해 전달되는 시는 ‘재생’되는 순간 평면적 인쇄공간을 벗어나 다차원적 공간에서 ‘새로운 시’로 재생산된다. 이는 인쇄된 시의 단순 복제가 아닌 시물라크르의 성격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간다.⁴⁰⁾

물론 현재의 시배달 영상이 빠르게 발전하는 미디어의 기술적 진보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배달이 시작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상의 제작방식은 큰 변화 없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시배달 영

39) 2006년 도중환 시인을 시작으로 2007년 안도현, 2008년 나희덕, 2009년 문태준, 2010년 김기택, 2011년 김선우, 2012년 황인숙, 2013년 5월부터는 새로이 장석남 시인이 맡아 시를 소개하는 ‘집배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0) 제이 데이비드 볼터·리처드 그루신(2006), pp. 72-73; 피종호(2005), p. 241, p. 243 참조.

상이 가상현실과 같은 몰입감을 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시배달은 “단절”을 포함한 테크놀로지⁴¹⁾의 제작 환경으로 인해 인쇄된 시를 읽거나 시 낭송을 들을 때보다 시 자체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영상의 기술적 특성에 주목하게 되느냐, 시 자체의 감상에 집중하게 되느냐의 차이가 개개인의 감상방식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배달 영상이 지닌 하이퍼매개로서의 가치가 부인될 수는 없다. 인쇄된 시와 달리 웹상에 게재된 시배달 영상은 게시물을 클릭하고 영상을 작동시키고 전체화면으로 감상하거나 스크롤바를 드래그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재생’된다. 단순히 인쇄된 문서 텍스트가 제시될 뿐이던 컴퓨터 화면을 또 다른 시의 양태를 보여주는 새로운 시각적 공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대체’는 웹뿐만이 아닌 윈도우 양식 전체의 작동 전략이다.- 시배달 영상은 인쇄된 시집의 대항마로 제작되지 않았다. 이는 일종의 개선으로 시도된 재매개의 과정으로 인쇄된 시집의 속성에 충실하고자 하며 과거의 시가 지닌 속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시의 디지털화로 볼 수 있다. ‘재생’되는 시배달 영상을 감상하면서 독자들은 다중적 표상의 문제에 직면해 인쇄된 시와 영상화된 시의 차이와 어떤 것이 더 시의 미감을 잘 전달하는가에 대해 생각하는 재매개 행위를 경험하게 된다.⁴²⁾

이처럼 재매개를 통해 디지털화된 시는 인쇄된 시에 기대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변별되는-아니 인쇄된 시집이 제공할 수 없는-새로운 시의 감상방식을 제공할 때 존재가치가 강화된다. 벤야민의 표현에 기대자면 기존 시의 아우라를 파괴하지 않고 새로운 미디어의 형식 속에서 그 아우라를 개조해낼 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활자화되었던 기

41) 제이 데이비드 볼터 · 리처드 그루신(2006), pp. 21-24 참조.

42) 제이 데이비드 볼터 · 리처드 그루신(2006), pp. 45-47, pp. 51-52, p. 54, pp. 66-67 참조.

존의 시가 하이퍼매체를 통해 공간화된 환경 속에서 재생산될 때 시의 재매개가 가능해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⁴³⁾

다변화하는 기술매체에 응답하는 시 감상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 시 배달 영상은 매체적 특성을 심분 반영하는 시의 디지털화 작업으로 발전과 보완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간 이 같은 매체발전에 대한 ‘시배달’의 응답은 제작방식이 아닌 독자에게 시배달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의 변화로 나타났다.

‘시배달’은 2006년 이메일을 통해 독자들에게 시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0년 12월부터 시배달은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그림 8]과 팟캐스트(Podcast)[그림 7]⁴⁴⁾라는 새로운 채널을 통해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팟캐스트는 꾸준히 저변을 확대해온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기호에 맞춰 등장한 새로운 소통방식으로⁴⁵⁾, 출판업계의 불황을 타개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⁴⁶⁾

43) 제이 데이비드 볼터·리처드 그루신(2006), pp. 80-81, p. 91 참조.

44) 팟캐스트는 아이팟(iPod)의 “pod”과 방송(broadcast)의 “cast”가 합쳐진 단어로,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디지털화된 오디오 파일이나 비디오 파일의 형태로 제공하는 1인 미디어 시대의 대표적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2015.3.2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99258&cid=2597&categoryId=2597>.

45) 2104년 국내에서 한 달에 한번 이상 프로그램을 제작, 제공하는 팟캐스트는 400여 개에 달하고, 2014년 4월 신규 생성된 국내 팟캐스트는 194개로 작년 동기 대비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팟캐스트부터 컬처카페까지, 불황 속 출판사가 살아남는 법』, 『헤럴드경제』, 헤럴드, 2014.7.15.

46) 전자매체를 통해 재매개된 책을 접한 독자들은 SNS를 통해 이를 추천하거나 인쇄된 책을 구매하기도 한다. 문학동네 가을호에 실린 박민규 작가의 ‘눈먼 자들의 국가’가 『문학동네』 팟캐스트를 통해 전문이 낭독되면서 소셜네트워크(SNS)상에서 화제를 모은 사실을 동호의 초판 4000부가 발간 한 달만에 매진된 이례적인 기현상과 무관하게 볼 수만은 없다. 빨간 책방(위즈덤 하우스), 라디오 책다방(창비), 낭만서점(교보문고), 문학동네 채널 1(문학동네), 김진애의 책으로 트다(다산북스), 소소한 책수다(푸른봄), 라디오 르 지라시(북스피어) 등이 대표적 출판 팟캐스트이다. 이유진(2014), 『문학계 ‘이변’… 세월호 다룬 ‘문학동네’ 초판 매진』, 『한겨레』, 한겨레 신문사, 2014.9.30.



[그림 7] 시배달 팟캐스트



[그림 8] 문학집배원 어플리케이션

영상매체에 익숙한 현재의 독자층들은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닌 듣는 것, 감상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이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감상방식은 인터넷 창을 띄워 정보를 검색했던 기존의 매체활용방식보다 편리하고 간단하다. 이처럼 통신기기 발달의 첨병 역할을 담당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시배달을 서비스하려 한 <문장>의 노력은 전자매체를 통해 실시간 변화하는 독자층의 소리를 담아내려는 소통공간의 창출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어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한 ‘시배달’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⁴⁷⁾ <문장>의 모바일 버전이 출시되어 스마트폰으로 시배달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기존 팟캐스트에 비해 화면구성도 불편하고 디자인도 친화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시사

47) 현재는 ‘문장의 소리’와 ‘문장웹진, 소설을 들려주마’만이 팟캐스트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팟캐스트의 매체적 특성에 대한 <문장> 운영진의 평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의 첫 모바일 기기 활용 사례로 기록될 수 있는 문학집배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종료되고, 시배달 팟캐스트 역시 2011년 ‘김선우의 시배달’ [그림 6]의 일회성 시도로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시 장르를 수용하는 다양한 접근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독자들이—상대적으로 소수일지라도—존재한다는 점, 매체 활용에 익숙한 대중들의 시 장르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독자와 소통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한국 현대시의 변화를 꾀하는 적극적 시도가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는 방증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매체는 인쇄상태에 놓여 있던 시를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 텍스트를 웹 공간에서 ‘새롭게’ 생성시키는 방식으로 재매개될 수 있다. 이 경우 웹상에 게재된 시는 낡은 것인 동시에 새로운 것이 된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전통적 예술이 미디어화하는 과정”을 포스트모던 문화의 공간화로 기술한 바 있다. 인쇄 텍스트가 월드와이드웹 같은 하이퍼텍스트로 변화하면서 문자로 전달되던 시가 “시각적, 개념적 공간” 속에서 텍스트의 재매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⁴⁸⁾ 이 경우 생성으로서의 재매개는 컴퓨터매체를 통해 확장된 언어의 소통적 기능이 평면적 공간을 넘어선 다차원적 공간에서 문학적 의미생산의 특징을 지닐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전자매체를 통한 시의 재매개는 상호작용성과 링크를 통한 하이퍼매체성을 필수적 구성요소로 삼는다.⁴⁹⁾ 다음 절에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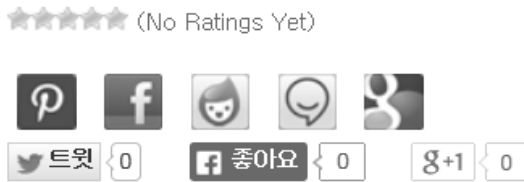
3.3.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재매개와 소통

문자적인 동시에 일방향적이기까지 하다면 매체를 활용한다는 것 외에 인쇄매체에 실린 시와 다를 바 없겠지만,⁵⁰⁾ <문장 웹진>에 게재된

48) 제이 데이비드 볼터(2010), p. 66, p. 69 참조.

49) 피종호(2005), p. 243.

시들과 <사이버 문학광장>의 ‘시배달’ 코너에는 독자들이 직접 댓글을 달거나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facebook이나 me2day 등 SNS로 직접 이동시켜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게시된 모든 시들에는 “신작시”, “함성호” 등의 태그가 달려 기존의 선형적 질서를 띤 잡지와 다르게 키워드에 따른 독자의 정보검색을 용이하게 돕고 있다. 이는 디지털 문학이 지니는 하이퍼매체성, 매체와의 직접적 연관성, 상호작용성, 네트워킹과의 연관성 등의 특징⁵¹⁾을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문장 웹진>을 기존의 인쇄된 잡지들과 변별시켜준다.



[그림 9] <문장 웹진>의 SNS 추천 기능

이는 초기 <문장 웹진> 편집자들의 소통에 대한 고민⁵²⁾을 반영한 것으로, 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문장 웹진>에 실린 시들이—문자의 비중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하이퍼텍스트 시로서의 양방향 문학⁵³⁾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현재는 사이트 개편으로 사라진 <문장> 내 ‘멀티미디어 광장’ 메뉴는 다매체성을 여실히 드러낸 코너였다. 이는 플래시를 활용해 작가들이

50) 최혜실(2007), 『문자문학에서 전자문화로』, 한길사, p. 142 참조.

51) 피종호(2005), p. 236.

52) 그러나 웹진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실시간 독자 서평과 쌍방향 교류라는 측면에는 자유롭지 못하다. 서경석(2006).

53) 최혜실(2007), p. 142.

직접 자신의 시를 낭송하는 ‘작가낭송 플래시’ 코너와 ‘느낌별 플래시’ 코너로 나뉘었다. 또한 ‘시 이메일’ 코너[그림 10]에서는 네티즌 독자들이 직접 시를 본문으로 삼아 편지지를 선택하고 꾸며 이메일을 작성해 보낼 수 있게끔 했다. 이는 사용자가 각 단계별로 ‘시’와 ‘편지지’의 메뉴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독서경로를 만들고, 이를 개인의 상상력 속에서 ‘메일’로 작성하는 일종의 창작과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체를 통한 재매개의 성격을 지닌다. ‘놀이’의 개념을 차용하여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시의 창의적 수용을 도모하는 이 같은 코너들은 새로운 매체를 활용해 시가 지닌 놀이로서의 성격⁵⁴⁾을 잘 구현한 경우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 현재 자취를 감춰 아쉬움을 남긴다.



[그림 10] 개편 전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2012년) 내 ‘멀티미디어 광장’의 ‘시 이메일’ 코너

54) 시 창작과 놀이의 연관성은 호이징가에 의해 특히 강조된다. 그는 시가 놀이에서 생겨다면서 놀이와 시의 관계는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으며, 정치, 종교, 법 등이 놀이와의 연관성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반면, 시만이 자신이 태어난 곳인 놀이 영역 속에 굳건히 남아있다면서 결국 시는 말로 하는 놀이라고 정의내렸다. 요한 하위징아(2010), 이중인 역, 『호모 루덴스』, 연암서가, pp. 254-260.

상기한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간 <문장>은 ‘사이버 문학광장’이라는 명칭이 보여주듯이 웹사이트가 갖는 특성을 십분 활용해 다각도로 독자들과 교류하기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다. 매체의 활용을 통해 시를 감상하는 방식을 확장시키는 것을 넘어 ‘플래쉬’, ‘시 이메일’ 쓰기 등 독자가 ‘놀이’의 개념으로 즐겁게 시의 수용과 창작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적극적으로 형성하였고, 작가들과 독자들이 시를 소화해 내는 방식을 다양하게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매체의 활용이 창작과 감상의 이분적 경계를 넘어 어떻게 능동적 읽기를 유도하게 되는지를 비교적 다각도로 보여주려 노력해왔다. 그간 한국 시단의 디지털화 시도들이 일회성에 그치고 사라져버린 것과 달리 이처럼 <문장>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해올 수 있었던 기저에는 이전부터 ‘이메일’을 통해 ‘문학 집배원’ 시인들이 전하는 시편들을 꾸준히 구독해온 독자층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재정적 지원이 놓여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시도를 통해 시의 디지털화를 선도해가고 있는 <문장 웹진>, <문장>에서도 “쌍방향 교류” 측면의 한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 문제로 남아있다. 비선형성과 다매체성의 조건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독자와의 상호작용성이 결여된다면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시의 창작과 수용이라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간 <문장 웹진>에서는 “‘독자와 함께 하는, 독자가 참여하는 공간’이 되기 위하여” 새로 게재되는 작품에 대한 ‘댓글’ 달기를 통해 독자와 작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독자 게시판’을 통한 독자의 요청을 수렴해 편집진이 독점해왔던 웹진의 기획방식을 수정하는 한편, 독자 참여 코너에 수록된 원고에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으로써 매체적 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독자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려는⁵⁵⁾ 노력들이 이어졌으며, 3.2.에서 살펴본 것과

55) 장철문(2006), 『독자와 함께 하는, 독자가 참여하는 공간』, 『문장웹진』 12월호.
<http://webzine.munjang.or.kr/archives/2225>.

같이 ‘문학집배원’의 서비스 채널을 확대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한된 독자층에 한정된 수용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장> 내 ‘창작광장’의 시 코너에는 3월만 해도 매일 평균 대여섯 개의 평가를 기다리는 창작시들이 게시되고 있다. 반면 일반 독자들이 동영상으로 시배달을 만들어 게재할 수 있는 ‘문학집배원’ 내의 ‘나도 집배원’ 코너에는 생성 이래 단 한 건의 글도 등록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시배달’ 코너에 독자들의 댓글들이 몰려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문장 웹진>의 디지털화 노력이 다수 대중들과의 소통 확대라는 실효성을 거두는 방향으로는 전개되지 못했음을 반증해준다.⁵⁶⁾

‘시배달’ 영상은 상호작용성을 창작방식의 주요한 구성 원칙으로 삼는 미디어 아트와 유사하다. 이 같은 소통의 문제는 전자매체를 활용한 모든 장르에서 창작의 원칙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바,⁵⁷⁾ <문장>의 행보가 한국 시단의 디지털화 과정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는 양방향성을 끌어내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태그를 시의 주제나 소재, 특성에 따라 키워드를 세분화시켜 보다 정교하게 보강한다든지, - 현재 <문장 웹진>에서 시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기한 영화제목이나 감독 이름 등에 관련 정보가 담긴 웹페이지나 영상 클립 등을 링크로 연결시킨다면 매체적 특성을 더

56) 독자의 참여가 저조한 이 같은 현상은 <문장 웹진> 이후에 생성된 많은 웹진들 또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다. 과학 소설, SF 소설 등 장르문학이 중심이 된 웹진 ‘크로스로드’가 운영되고 있고, 2009년에 창간된 ‘문학 웹진 뿔’과 ‘문화웹진 나비’, 2010년에 개설된 ‘웹진 문지’와 ‘창비문학블로그 창문’ 등 알라딘, yes24와 같은 인터넷 서점 및 웅진씽크빅, 문학동네, 문학과지성사, 창작과비평사 등 기존 출판사들과 연계된 웹진들이 속속 등장하였다. 일부의 상업성 우려 속에서 ‘인터넷파크’ 내에 개설된 ‘웹진 북&’의 경우 지속적으로 독자 기자단을 모집하는 등 활동영역을 넓혔으나 큰 파급력을 지니지는 못했다. 박선희(2009), 『인터넷서점에 등지 튼 웹진… 예스24-알라딘 잇달아 신설』,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2009.7.22.

57) 오은경(2008), p. 2, p. 5, p. 199.

육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구성된 시 텍스트는 인쇄 미디어를 한층 강화하는 재매개가 될 수 있다. <문장 웹진>과 <문장>의 매체적 특성은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는 인터넷 유저들을 시의 독자로 초대하는 통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초대된 독자들은 시를 읽고 댓글을 통해 다른 독자들에게 다른 음역으로 이야기할지도 모른다.⁵⁸⁾ 그런 점에서 실질적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지만 <문장>의 ‘시배달’ 메뉴에 개설된 ‘나도 집배원’ 코너는 독자들의 참여에 의한 다양성의 획득, 즉 수많은 시물라크르의 생성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볼터는 독자들의 접촉에 대한 반응 여부가 하이퍼텍스트를 정적인 인쇄 텍스트와 구분한다고 말한다.⁵⁹⁾ 시의 디지털화가 지니는 이 같은 개방적 특성은 단지 시 텍스트의 공유가 아닌 시의 의미화에 있어서의 집단지성의 형성 가능성을 함의한다. 양방향적 특성에 의해 독자와 저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한국시의 디지털화에 한정지어 볼 때 여전히 시인과 독자 간의 위계와 거리는 존재한다. 그렇지만 하이퍼매개된 시의 디지털화에 수반되어야 할 양방향적 특성이 제대로 구현된다면, 시를 창작하는 과정이 아니라 감상을 통해 시를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교환되고 새로운 시의 의미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4. 현대시의 새로운 도약

혁신이란 기존의 것들을 바탕으로 한 개혁을 의미한다. 새로운 미디어가 정당화되는 것은 선행 미디어의 결함을 보충하거나 단점을 보완해주

58) 제이 데이비드 볼터(2010), p. 15.

59) 제이 데이비드 볼터(2010), p. 64.

어, 기존 미디어가 이룩하지 못한 약속을 실현해줄 때이다.⁶⁰⁾ 뉴미디어가 이전 미디어들을 재배치하고 개조하는 것이듯, 새로운 매체 또한 기존의 매체를 재매개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하고자 투쟁한다.⁶¹⁾ 그런 점에서 한국시의 디지털화는 독자들을 잡아두고 새롭게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인쇄의 재매개⁶²⁾ 양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맞아 변화하고 있는 현대시의 변용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작업이었다. 본고에서는 <문장>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추진해온 시의 소개와 수용 방식의 변화를 ‘재매개’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현대시의 변용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매체 시대의 독자를 겨냥해 양방향 소통을 시도한 한국시의 디지털화 노력은 적극적인 독자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얻기 힘들다. 시 장르를 확대시키는 다매체적 변용의 방식은 창작뿐만 아니라 독자수용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문장>의 경우를 통해 살펴본 현대시의 변용은 창작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것이 아니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영향이 시 장르의 본질적 측면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고, 주로 독자들에게 시를 소개하는 전달방식의 변화에 한정되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접목된 창작 환경의 변화는 문자 텍스트 중심의 최근 시들이 보여준 의식의 파편화에 의한 관계의 단절 양상과 일방향성의 전달 방식을 상호관련성과 양방향성의 소통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문장>에 게재된 시에서 엿볼 수 있는 창작과 향유방식의 변화, 즉 과학기술의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계한 창작 방식과 웹사이트를 매개로 한 작품 향유방식의 변화는 그 같은 가능성을 현실화시키지 못했다.

60) 제이 데이비드 볼터·리처드 그루신(2006), p. 72.

61) 제이 데이비드 볼터·리처드 그루신(2006), pp. 73-74.

62) 제이 데이비드 볼터(2010), p. 70.

앞선 연구에서 필자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관심이 시의 창작방식에 미친 영향을 현대시 텍스트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는 내용적 변화에 대한 고찰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인식이 시작방식에 미친 영향이 ‘문자매체 중심의 시 장르와 동시대성의 교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완성도나 작품의 가치면에서 평균적으로 그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지는 않”았으며 “독자와의 소통부재라는 직면한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을 포함하였다.⁶³⁾

본고의 논의에 따르면 이제까지 현대시에 디지털 매체의 영향은 시의 본질적 측면의 변화를 초래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매체의 변화를 시대적 흐름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창작과 수용의 측면에서 직,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음을 <문장>의 사례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이는 앞으로 매체의 변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내질 수도 있을 현대시의 변화를 고민하는 작업의 가치를 설명해준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속도와 강도로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디지털 매체가 현대시의 창작과 수용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현재의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가능하다.

그 같은 동시대성의 수용은 오랜 시간 단절되었던 한국 현대시와 독자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상호작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호이징가가 시의 본질로 언급한 ‘놀이’의 특성이 그 같은 고민에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그간 한국시가 독자들에게 외면당해온 현실의 기저에는 입시에 초점을 둔 시 교육이 초래한 ‘어렵고 난해한 장르’라는 선입견이 놓여 있다. 시의 디지털화가 동시대의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접근방식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 이는 ‘즐거움’, 즉 ‘재

63) 임수영(2010), pp. 293-302 참조.

미'라는 키워드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시 읽기가 재미있을 수 있다는 깨달음, 어렵고 따분한 장르라는 선입견의 불식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재미있게 읽고 창작하는 상호소통의 경험을 통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이라는 매체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시 장르의 변용 양상을 살펴본 본고의 논의는 국외 지역의 e-poetry와 미디어 아트, 디지털 아트, 비디오 아트 등으로 지칭되는 미술 장르 간의 교호성과 결부될 수 있다. 이들의 작업은 상기한 <문장>이 시도해온 실험적 노력들에 견주어질 수 있는 바, 각각의 매체적, 미학적 특성이 빚어내는 차이는 한국시의 디지털화가 위에서 언급한 양방향 소통이라는 '재미'의 영역으로 나아갈 방향을 예견케 해준다. 이처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시와 미술 장르 간의 유사성과 관련성, 그리고 이들 간의 구분이 가능해지는 지점을 장르적 특성과 형상화의 측면에서 규명하는 앞으로의 연구는 본고가 지닌 논의의 한계점을 보완해주는 작업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자 료】

다음 문학 속 세상 http://story.media.daum.net/?t__nil_downservice=story
문장 웹진 <http://webzine.munjang.or.kr>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 <http://www.munjang.or.kr>
生時·生詩 www.livepoems.net
시사랑문예대학 www.poemq.or.kr
언어의 새벽: 하이퍼텍스트와 문학 <http://eos.mct.go.kr>
웹진 북& book interpark.com/meet/MeetWebzMain.do?_method=main
팬포엠 FanPoem: <http://www.fanpoem.co.kr>
포엠토피아 <http://www.poemtopia.co.kr>

【논 저】

김태옥(2010), 『담화 텍스트 언어시학』, 서강대학교 출판부.
박선희(2009), 「인터넷서점에 등지 튼 웹진… 예스24-알라딘 잇달아 신설」,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2009.7.22.
심혜련(2012), 『20세기의 매체철학』, 그린비.
오은경(2008), 『뉴 미디어 시대의 예술-예술은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연세대학교 출판부.
유현주(2009), 「디지털 매체에서 구체시의 새로운 방향-비주얼 포엠, 구체시, 디지털 포엠」, 『인문학연구』 제38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_____(2003), 『하이퍼텍스트-디지털미학의 키워드』,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유진(2014), 「문학계 ‘이변’… 세월호 다룬 ‘문학동네’ 초판 매진」, 『한겨레』, 한겨레 신문사, 2014.9.30.
임수영(2010), 「現代詩의 消費現象과 텍스트의 擴大」, 『語文研究』 제145호, 韓國語文教育硏究會.
임현순(2008), 「독자들의 한국현대시 수용과 인식의 특성-한국 대중시 형성의 문화적 요인과 현대시의 대중화 문제 연구(1)」, 『한국시학연구』 22호, 한국시학회.

- 장노현(2013), 『디지털 매체와 문학의 확장』, 역락.
- 최강민(2013), 『온라인 시대와 웹진 <문화 다>』, 『교수신문』, 교수신문사, 2013.1.4.
- 최동호, 이성우(2005), 『팬포엠(FanPoem)의 가능성과 실제 구현-하이퍼텍스트 시쓰기 프로그램과 시인,독자의 위상 변화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1권, 민족어문학회.
- 최재봉(2005), 『문학 포털사이트 ‘문장’ 문 열어』, 『한겨레』, 한겨레신문사, 2005.6.1.
- 최혜실(2007), 『문자문학에서 전자문화로』, 한길사.
- 피종호(2005), 『디지털 문학의 유형』,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25호, 한국뷔히너학회.
- _____ (2000), 『예술형식의 상호 매체성』, 『독일문학』76권, 한국독어독문학회.
- 가브리엘 와이만(2003), 김용호 옮김, 『매체의 현실 구성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디터 메르쉬(2009), 문화학연구회 옮김, 『매체이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 마셜 맥루언(1997), 박정규 옮김,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 에스펜 올셋(2007), 류현주 역, 『사이버 텍스트』, 글누림.
- 요한 하위징아(2010), 이종인 역, 『호모 루덴스』, 연암서가.
- 제이 데이비드 볼터(2010), 김익현 역, 『글쓰기의 공간』, 커뮤니케이션북스.
- 제이 데이비드 볼터 · 리처드 그루신(2006), 이재현 옮김,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커뮤니케이션북스.
- 파트리스 파비스(2012), 『21세기 인문학에서의 수행성과 매체성』, 『수행성과 매체성: 21세기 인문학의 쟁점』(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푸른사상.
- 『팟캐스트부터 컬처카페까지, 불황 속 출판사가 살아남는 법』, 『헤럴드경제』, 헤럴드, 2014.7.15.
- Marshall McLuhan(2003), *Understanding Media*(ed. by W. Terrence Gordon), Corte Madera: Ginko press.
- 고봉준(2013), 『눈 내리는 밤』, 『문장웹진』 2월호. <http://webzine.munjang.or.kr/archives/6593>.
- _____ (2012), 『가정의 달, 잔인하고 피로한』, 『문장웹진』 5월호. <http://webzine>.

munjang.or.kr/archives/2303.

서경석(2006), 「웹진 ‘문장’은 늘 새롭게 태어난다」, 『문장웹진』 6월호.

<http://webzine.munjang.or.kr/archives/2213>.

오창은(2014), 「만년필 예찬」, 『문장웹진』 4월호.

<http://webzine.munjang.or.kr/archives/9999>.

장철문(2006), 「독자와 함께 하는, 독자가 참여하는 공간」, 『문장웹진』 12월호.

<http://webzine.munjang.or.kr/archives/2225>.

_____(2006), 「출발의 동력을 거듭 새기며」, 『문장웹진』 6월호.

<http://webzine.munjang.or.kr/archives/2215>.

편혜영(2013), 「안부 너머의 안부」, 『문장웹진』 1월호.

<http://webzine.munjang.or.kr/archives/6381>

「팟캐스트」, 네이버 지식백과, 2015.3.2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99258&cid=2597&categoryId=2597>.

원고 접수일: 2015년 3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5년 4월 19일

계재 확정일: 2015년 5월 1일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Facing Korean Modern Poetry in the Digital Era

Im, Soo-Young*

This thesis diachronically examines the change in Korean modern poetry, faced with the appearance of multi-media. It starts with the consideration of 'media' and surveys the element of remediation in Korean modern poetry, especially focusing on 'Cyber Literature Plaza, Munjang'. It studies the digitalization of Korean poetry corresponding to multimedia developments, and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is.

It considers the element of remediation in 'Cyber Literature Plaza, Munjang' in three different ways. The first is the remediation of printing poetry, which changes the shape and impression of poetry when transferred from printing to digital media. The second is the reproduction of poetry and the spatialization of reception ways. 'SIBAEDAL' which utilizes visual media for appreciating poetry is analyzed. The last is hyper-textual remediation, such as through SNS and podcasts. In particular, this study investigates these issues focusing on the limits of interactive communication in the digitalization of Korean poetry and considers the way in which it will proceed.

* Division of General Studies & Teaching Profession, Dongduk Womens University